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15, 솔로몬 왕국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15회
솔로몬왕국 입니다.

연대기 기자는 우리와 그의 공동체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서
그의 왕국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의 통치를 제시했고,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도록 모든 왕의 통치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야기의 가장 큰
부분은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솔로몬에 관한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의 또 다른 요점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역대기 저자는 극심한
곤경에 처한 다양한 왕들이 있음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에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 자신도 그의 왕국이 끝날 무렵에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왕국의 위대함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8장과 9장에 있는 솔로몬의 기록의 결론은 우리에게 솔로몬
왕국의 일부였던 것들 중 일부를 다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우리가
이미 열왕기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를 실제로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봅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그는 세상사에 있어서
작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두 영토인 레바논과 시리아는 솔로몬의 통치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경제 활동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페니키아인들은 목재와 기술, 해양 활동 등 자원의 일부를 솔로몬에게 빌려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 식량과 곡식을 공급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골짜기에 곡식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마스쿠스 등 북쪽의 영토인 시리아는 솔로몬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세금을 부과한 방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강제 노동입니다.

이제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징집된 노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 채석장에서 일하거나 목재를 다루는 일에 일 년의 일부를 바쳐야 했습니다. 절.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묘사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비이스라엘 거주자인 히브리어로 게림(gerim)에게만 의존하여 노동력을 공급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나는 종종 이런 것들에 감탄합니다. 심지어 유럽과 영국의 훨씬 최근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도구를 생각하면, 그 건물을 짓고 목재를 깎고 돌을 깎는 데 얼마나 많은 인간의 노동이 들어갔을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나는 가장 좋은 예가 여전히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생각하는데, 이 피라미드는 거대한 돌들로 매우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욕기에서 지적하듯이 고대 세계의 대부분의 인간은 단지 왕의 종이 되는 것이 몹시였습니다. Chronicler가 그렇게 암울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요소는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땅을 분배한 본토인이 아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세금으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막절에는 성전예배를 가집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은 가을에 열리는 절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때는 10월쯤이고,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달의 14일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달은 우리가 속죄일인 욥 키푸르(Yom Kippur)를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달에는 성전이 정화되고, 그 날과 관련된 의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 초막절에 예배했던 예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국제적 영향력, 즉 아카바 만에서의 해상 활동을 통해 솔로몬 왕국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페니키아는 솔로몬이 주로 페니키아인과 그들의 선박을 통해 무역을 수행했던 북쪽 영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따르면 페니키아인들은 또한 홍해의 아카바 만에서 나라 남부에 있는 솔로몬을 도와 무역이 서쪽과 남쪽, 동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는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우리는 이들 국가가 막대한 양의 사업과 무역을 수행했고 뛰어난 항해 기술을 보유했으며 먼 거리 까지 항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Chronicler에 따르면 실제로 배의 여행은 최대 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배의 항해가 최대 3년인 이유는 배가 항해할 수 있으려면 계절과 순풍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확실히 중요한 일이었고, 실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며, 솔로몬은 솔로몬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에 감동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왕실의 미인대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의식용 방패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킹스에는 전신 길이의 방패와 손에 쥐는 작은 방패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쟁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사

퍼레이드나 다른 것들을 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국가의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해 미인대회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왕좌가 여섯 계단 중 하나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아마도 왕좌 자체가 앉았던 단이 일곱 번째 계단이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좌에는 7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 머리나 각 층계에 앉은 그룹들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림들을 매우 반영할 것입니다. 상아 등을 포함한 장엄한 왕좌. 그리고 상업 및 군사 무역에 대해서는 여기 Tarshish 배라고 불리는 것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스 배는 그 장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이름은 아마도 다시스의 먼 거리에서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다시스 배는 많은 화물을 싣고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대형 화물선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종류의 화물 운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병은 말과 말 사육, 말 훈련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집트와 터키 남부 지역과 거래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을 훈련하고 말을 거래하여 기병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비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기 작가의 솔로몬 버전에서는 왕국이 장엄하게 끝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모든 것, 즉 평화의 사람, 샬롬의 사람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묘사로 끝납니다. 이제 솔로몬 왕국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주요 군사 지도자인 여로보암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고, 여로보암이 안전을 위해 애굽으로 도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역대기의 이야기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솔로몬 통치 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상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15회 솔로몬왕국입니다.